

2015 서울시 9급(2015. 6. 13.) 시험 해설

해원국어 고혜원

1. 다음 중 표준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덩쿨-눈두덩이-놀이감
- ② 윗어른-호루라기-딴지
- ③ 계면쩍다-지리하다-빼지다
- ④ 주책-두루뭉술하다-허드레

- 정답 : ④

- [풀이] ‘주책-두루뭉술하다-허드레’는 모두 표준어이다.

- [오답]

①	· 덩쿨 → 녁쿨/덩굴 : ‘녕쿨’과 ‘덩굴’만 복수 표준어이다. (※관련 : 표준어 26항) · 놀이감 → 놀잇감 : ‘놀이’와 ‘감’의 합성어로, [놀이감/놀인감]으로 발음된다. 즉 합성과정에서 분명히 된소리로 소리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한다. ‘놀잇감’은 ‘장난감’과 더불어 복수 표준어이다. (※관련 : 한글맞춤법 30항, 표준어 26항)
②	· 윗어른 → 웃어른 : ‘위/아래’ 대립이 있는 경우에만 ‘위-/윗-’을 사용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을 쓴다. 웃어른/윗사람/윗분(O) (※관련 : 표준어 12항)
③	· 지리하다 → 지루하다 : 모음의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인 ‘지루하다’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관련 : 표준어 11항)

2.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는?

<보기>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 ① 보기
- ② 낮췌
- ③ 낮추다
- ④ 꽃답다

- 정답 : ②

- [풀이] ‘낮췌’은 ‘낮설다’의 어근 ‘낮설-’에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이 붙은 것이다.

※ 어미는 접미사와 달리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 [오답]

① 보기 : ‘보다’의 어근 ‘보-’에 명사 파생 접미사 ‘-기’가 붙은 것이다. ‘보다’란 동사가 접미사 ‘-기’에 의해 명사로 품사가 변했다.

③ 낮추다 : ‘낮다’의 어근 ‘낮-’에 사동 접미사 ‘-추-’가 붙은 것이다. ‘낮다’란 자동사가 접미

합격의 진리! 해원국어!! 적중 신화! 해원 국어!!

사 ‘-추-’에 의해 타동사로 변했다. ㉔ 온도가 낮다./온도를 낮추다.

④ 꽃답다 : 명사 ‘꽃’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답-’이 붙은 것이다. ‘꽃’이란 명사가 접미사 ‘-답-’에 의해 형용사로 변했다.

3.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아래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의 유형을 순서대로 고르면?

- ㉠ XAY→XBY(대치)
- ㉡ XAY→XØY(탈락)
- ㉢ XØY→XAY(첨가)
- ㉣ XABY→XCY(축약)

<보기>
 솔+하고→[솔하고] →[소타고]
 (가) (나)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 ②
 - [풀이]

- (가) : ‘솔’의 받침 ‘ㄷ’이 ‘ㄷ’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대치’이다. (‘대치’ 중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 (나) : ‘솔’으로 바뀐 형태의 받침 ‘ㄷ’과 ‘하’의 초성 ‘ㅎ’가 결합하여 ‘ㅌ’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ㅌ’이 ‘ㄷ’으로 바뀐 것과 달리 두 개의 자음 ‘ㄷ’과 ‘ㅎ’이 하나의 ‘ㅌ’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축약’이다. (축약 중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차라리 얼어서 죽을망정 것불은 아니 쪼겠다.
- ② 마음에 걱정이 있을 지라도 내색하지 마라.
- ③ 그녀는 얼굴이 예쁜대신 마음씨는 고약하다.
- ④ 그 사람이 친구들 말을 들을 지 모르겠다.

- 정답 : ①
 - [풀이] ‘-르망정’은 어미이므로 앞 말에 붙여 써야 하고, ‘아니’는 부사이므로 앞 뒤 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1번의 띄어쓰기는 모두 옳다.
 - [오답] 단어끼리는 띄어 쓰고, 조사와 어미는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② 있을 지라도 → 있을지라도
 : ‘-르지라도’는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의 뜻을 가진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합격의 진리! 해원국어!! 적중 신화! 해원 국어!!

- 한다.
- ③ 예쁜대신 → 예쁜 대신
: 주로 '-은', '-는' 뒤에서 쓰이는 명사로,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거나 그와 반대임을 나타낸다. 명사이므로 앞 말과는 반드시 띄어 써야한다.
 - ④ 들을 지 → 들을지
: '-르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 말과 붙여 써야 한다.

※ '지'는 '시간의 경과'의 의미와 함께 쓰일 때만, '의존명사'가 되어 앞말과 띄어 쓰게 된다.

5. 다음 중 국어의 형태적 특징은?

- ①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 ②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 ③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 ④ 언어 유형 중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갖는 SOV형 언어이다.

- 정답 : ②

- [풀이] 형태적 특징은 형태론의 범위인 단어와 품사와 관련된 특징을 말한다. 동사와 형용사는 어미에 의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용언으로 묶을 수 있다.

- [오답] 어순, 문장성분의 위치는 형태적 특징이 아닌 통사적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머지는 형태적 특징이 아닌 국어의 통사적 특징이다.

①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위치하는 것은 문장성분의 위치와 관련된 것으로 통사적 특징에 해당한다.

③, ④ 어순, 문장 성분 위치의 자유로움은 통사적 특징에 해당한다.

6.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서비스-소시지-소파-싱크대-팜플렛
- ② 리더쉽-소세지-싱크대-서비스-스카우트
- ③ 쇼파-씽크대-바디로션-슈퍼마켓-스카웃
- ④ 소파-소시지-슈퍼마켓-보디로션-팸플릿

- 정답 : ④

- [풀이] '소파-소시지-슈퍼마켓-보디로션-팸플릿'은 모두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쓰였다.

· 영어 'body'의 외래어 표기는 '보디'이다. 따라서 '보디로션'도 외래어 표기법에 맞다.

- [오답]

- ① · 팜플렛 → 팸플릿 ※ '팸플릿'은 '소책자', '작은 책자'로 순화할 수 있다.
- ② · 리더쉽 → 리더십 : '-ship'은 [-ʃɪp]로 발음된다. 이때 [ʃ]는 [i] 모음 앞에서 '쉬'가 아닌 '시'로 적는다. (※ 관련 : 외래어 표기법 1절 3항)
· 소세지 → 소시지 : 'sausage'의 발음은 [sɔːsɪdʒ]이다. [si]로 발음되므로 표기도 '소시지'로 해야 한다.
- ③ · 쇼파 → 소파

합격의 진리! 해원국어!! 적중 신화! 해원 국어!!

- 씩크대 → 싱크대 ※ '싱크대'는 '개수대', '설거지대'로 순화할 수 있다.
- 수퍼마켓 → 슈퍼마켓 : 'super'가 들어가는 말의 표기는 '슈퍼'이다.
- 스카웃 → 스카우트 : 어말과 자음 앞의 [p]는 '으'를 받쳐 적어야 하므로, '스카우트'가 맞다.

7.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열둘째이다.
- ② 요즘 재산을 털어먹는 사람이 많다.
- ③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 ④ 솟병아리가 내게로 다가왔다.

- 정답 : ③

- [풀이]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묵다.'란 의미를 가진 단어의 형태는 '머무르다'이다. 따라서 활용형도 '머무를(머무르+르)'이 맞다.

- [오답]

- ① · 열둘째 → 열두째
: '순서가 열두 번째가 되는 차례'를 의미하는 말은 '열두째'이고, '맨 앞에서부터 세어 모두 열두 개째가 됨'을 이르는 말은 '열둘째'이다. ①은 키의 순서가 12번째라는 의미이므로 '열두째'로 적어야 한다.
※ 열두째 : 순서가 열두 번째가 되는 차례.
※ 열둘째 : 맨 앞에서부터 세어 모두 열두 개째가 됨.
- ② · 털어먹는 → 털어먹는
: ②는 '재산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는 사람이 많다.'란 의미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는 '털어먹다'이다.
※ 털어먹다 :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다.
- ④ · 솟병아리 → 수평아리
: 접두사 '수-'는 본래 '수ㅎ-'의 형태였는데, 종성 'ㅎ'의 영향으로 파생 과정에서 거센소리가 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수평아리'가 표준어이다.
※ '암-'도 마찬가지다. ㉠ 암평아리(암ㅎ+병아리)

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한자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언가를 상실해버린 느낌을 지니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을 때가 종종 있지요. 게다가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눈엔 참 이상했어요. 마당에다 애써서 기른 집짐승들을 잡아먹는 것도 이상했고, 겨울을 잘 넘기고 해동이 될 때면 마을에 상여가 나가는 일이 많은 것도 이상해서 계속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 ① 상실: 喪失
- ② 성장: 盛裝

합격의 진리! 해원국어!! 적중 신화! 해원 국어!!

- ③ 이상: 異狀
- ④ 해동: 解冬

- 정답 : ①

- [풀이] 문맥상 '상실'은 '잃어버린'이란 의미로 쓰였는데, 이런 의미를 가진 한자는 '喪失'이 맞다. ※ 喪失(죽을 상, 잃을 실) :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

- [오답]

② · 盛裝 → 成長 : '자라다/크다'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成長(이루 성, 길 장)'이 와야 한다.
 ※ 盛裝(성할 성, 꾸밀 장) : 잘 차려입음. 또는 그런 차림. ㉞ 성장을 하고 모임에 참가하다.

③ · 異狀 → 異常 : '정상적이지 않다'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異常(다를 이, 항상 상)'이 맞다.
 ※ 異狀(다를 이, 형상 상) : 평소와는 다른 상태. ㉞ 이상을 발견하다.

④ · 解冬 → 解凍 : '녹아서 풀리다'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解凍(풀 해, 얼 동)'이 와야 한다.
 ※ 解冬(풀 해, 겨울 동) : 불교의 용어로, 동안거(冬安居)의 끝을 이르는 말이다.
 ※ 동안거(冬安居) : 승려들이 음력 10월 15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일정한 곳에 머물며 수도(修道)하는 일.

9. 다음 중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은?

<보기>

포장한 지 너무 오래되어 길에는 흙먼지가 일고 돌이 여기저기 굴러 있었다. 길 양쪽에 다 쓰러져가는 집들, 날품팔이 일꾼들이 찾아가는 장국밥집, 녹슨 함석지붕이 찌그러져 있었고, 흙먼지가 쌓인 책방, 조선기와를 올린 비틀어진 이층집, 복덕방 포장에 찢겨어 너풀 거린다.

- ① 탈피 후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먹이를 먹고 자리를 떠났다.
- ② 앞은 어긋나게 붙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면서 뒷줄기를 감싼다.
- ③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잘 짓는 것과 같다.
- ④ 성장이 둔화되어 일자리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정답 : ②

- [풀이] <보기>는 길의 풍경을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묘사한 글이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은 ②이다. ②에서는 '앞'의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다.

- [오답]

- ①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서사'이다.
- ③ 익숙한 대상을 끌어와 독자가 낯설어하는 대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한 '유추'이다.
- ④ '성장이 둔화'라는 원인, '일자리가 늘지 않음'이라는 원인과 결과로 서술한 '인과'이다.

10. 다음 문장들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전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합격의 진리! 해원국어!! 적중 신화! 해원 국어!!

ㄱ.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ㄴ.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ㄷ.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ㄹ.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ㅁ.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① ㄱ-ㄷ-ㅁ-ㄹ-ㄴ
- ② ㄴ-ㄹ-ㅁ-ㄱ-ㄷ
- ③ ㄴ-ㅁ-ㄱ-ㄷ-ㄹ
- ④ ㅁ-ㄹ-ㄱ-ㄷ-ㄴ

- 정답 : ③

- [풀이] ‘미괄식 문단’은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주장)을 적은 글이다. 따라서 결론(주장)에 해당하는 문장을 가장 나중에 둔 것을 찾으면 된다. 위 글은 인류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 속에서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만,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내용이다. 결론(주장)에 해당하는 문장은 ‘ㄹ’이므로 답은 ③이 된다.

※ 꼬리 잡기!! 앞의 서술어를 이어서 받는 첫 문장이 있다면 반드시 ‘연결 고리’가 된다. ‘ㄴ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 ㅁ ~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도 중요한 힌트!

ㄴ. 현대인들 과학 기술이 주는 편리함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으로 바라봄.

ㅁ. 낙관적 미래 전망에 대한 위험성의 근거가 존재.

ㄱ. 공기, 물의 오염,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있음.

ㄷ. 자연 환경 문제와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

ㄹ.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위험함. (결론/주장)

11.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로 가장 옳은 것은?

자유란 인간의 특성 중의 하나로서 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 가령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도나 권위, 혹은 억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동시에 안정성과 소속감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새롭게 나타난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

- ① 원인-결과

합격의 진리! 해원국어!! 적중 신화! 해원 국어!!

- ② 보편-특수
- ③ 일반-사례
- ④ 주장-근거

- 정답 : ①

- [풀이] 위 글은 '자유'를 정의하면서 '원인-결과'의 구조로 '도피를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글을 전개하고 있다.

- 원인1 : ~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 결과1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동시에
 ㉢안정성과 소속감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적나라하게 노출
- 원인2 :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 결과2 :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

12. 다음 중 서울을 주요 배경으로 한 소설이 아닌 것은?

- ① 박태원의 『천변 풍경』
- ② 염상섭의 『두 파산』
- ③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 ④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 정답 : ④

- [풀이]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은 나병환자들의 거주지 소록도를 배경으로 소록도 병원장으로 취임한 의사 조백헌과 나환자들과의 미묘한 관계, 정신적 방황과 애환을 실감나게 그린 소설이다.

- [오답]

- ① 박태원의 『천변 풍경』은 서울 청계천변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외면풍경을 마치 카메라로 찍듯이 묘사해나간 일종의 세대소설이다.
- ② 염상섭의 『두 파산』은 해방 직후 서울 황토현 부근을 배경으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파산된 인간을 통한 혼란한 사회상 풍자한 소설이다.
- ③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은 개성을 떠난 서울 변두리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터전을 마련하기까지를 그리고 있다.

13. 다음 밑줄 친 ㉠~㉣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뭍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니 뭍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 이승 아니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합격의 진리! 해원국어!! 적중 신화! 해원 국어!!

<p>㉠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p> <p>뭉락카노 뭉락카노</p> <p>㉡썩어서 동아밭줄은 삭아 내리는데</p> <p>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p> <p>㉢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박목월, 이별가 -</p>
--

-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④

- [풀이] ㉠, ㉡, ㉢은 시적 대상과의 '단절'을, ㉣은 시적 대상과의 '초월 즉 소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미가 다른 하나는 ④이다.

※ ㉠과 ㉡의 '바람'은 목소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 ㉣의 '바람'은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은 '초월'을 의미한다.

14. 다음 시조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나타난 것은?

<p>안에 헛는 촛불 놀과 이별 흐옛관디</p> <p>것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르논고</p> <p>더 촛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르도다</p>
--

- ①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논/ 다정도 병인냥하여 즈 못 드러 흐노라
- ② 흐 손에 막디 잡고 또 흐 손에 가식 쥐고/ 늙는 길은 가
식으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디로 칠옛튼이/ 백발이 제 몬져
알고 지름길로 오건야
- ③ 이화우 흐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흐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심각논가/ 천리에 외로운 썸만 오락가락 흐노매
- ④ 밋 올 사름들아 올흔 일 흐자스라/사름이 되어 나셔 울티웃
못흐면/미쇼를 갓 곳갈 식워 밥머기나 다르라

- 정답 : ③

- [풀이] 위 시조의 화자는 촛불의 촛농이 흐르는 것을 눈물을 흐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화자는 촛불에 감정이입 하여 '나'가 임과 이별 후 안타까움, 슬픔,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이다. ③도 이별 후 겪는 안타까움, 슬픔,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오답]

① 봄밤에 느끼는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합격의 진리! 해원국어!! 적중 신화! 해원 국어!!

- ② 늙음에 대한 한탄을 웃음으로 승화한 작품이다.
- ④ 정철의 ‘훈민가’의 일부로 옳은 일을 하자는 권계(勸戒)의 노래이다. 위 시와 유사한 정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ㅂ, ㅅ, ㅈ, ㅎ’ 등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ㄱ, ㄷ, ㅂ, ㅅ, ㅈ, ㅎ’을 만드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ㅅ, ㅆ, ㅈ, ㅊ, ㅌ, ㅍ, ㅍ, ㅍ, ㅎ’ 등도 만들어 썼다.

- ①象形
- ②加畫
- ③竝書
- ④連書

- 정답 : ③
- [풀이] ‘가로로 나란히 써서’라는 부분과 그 예인 ‘ㄱ(각자병서), ㅅ(합용병서)’ 등을 볼 때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식인 竝書(나란히 병, 글 서)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 ①象形(형상 상, 모양 형) : 모양을 본뜬다는 뜻으로,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만든 원리이다.
- ②加畫(더할 가, 그을 획) :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더 센 소리가 나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로, ‘ㄷ, ㅌ’ 등이 있다.
- ④連書(이을 연, 글 서) : 훈민정음에서, 순경음(脣輕音)을 표기하기 위하여 순음자(脣音字) 밑에 ‘ㅇ’을 이어 쓰는 원리로, ‘ㄹ’, ‘ㄴ’, ‘ㅇ’, ‘ㅇ’ 등이 있다.

16.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보기>
그는 집에 갈 때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간다.

- ① 그는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
- ② 그는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타 줄 아는 재주가 있다.
- ③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럼을 잘 타다.
- ④ 그는 감시가 소홀한 야밤을 타서 먼 곳으로 갔다.

- 정답 : ④
- [풀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구분하는 문제다. ㉠의 ‘타다’는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란 의미이다. 이와 의미가 유사한 것은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란 의미를 가진 ④이다. ‘이용하다(use)’란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보기>와 ④의 ‘타다’는 그 의미가 유사하다.
- [오답] 나머지는 <보기>의 ‘타다’와 동음이의어 관계의 단어이다.

합격의 진리! 해원국어!! 적중 신화! 해원 국어!!

- ① 타다 :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 받다, 얻다 등)
- ② 타다 : 악기의 줄을 통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 (≒ 연주하다, 튕기다 등)
- ③ 타다 : 부끄럼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나 간지럼 따위의 육체적 느낌을 쉽게 느끼다. (≒ 느끼다 등)

17. <보기>의 홍길동 씨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한자성어는?

<보기>

홍길동 씨는 내일 열릴 동창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성화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당일 아침 갑작스레 배탈이 나서 도저히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동창회 총무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끈이끈대로 듣지 않고 동창회에 나오기 싫은 핑계라고 생각했다.

- ① 錦上添花
- ② 烏飛梨落
- ③ 苦盡甘來
- ④ 一舉兩得

- 정답 : ②

- [풀이] 가기 싫어하던 상황에서, 공교롭게 배탈이 나서 억울하게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므로 '烏飛梨落(까마귀 오, 날 비, 배나무 이, 떨어질 락)'이 어울린다.

※ 오비이락(烏飛梨落)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 [오답]

- ① 錦上添花(비단 금, 위 상, 더할 첨, 꽃 화) :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苦盡甘來(쓴 고, 다할 진, 달 감, 올 래)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 ④ 一舉兩得(하나 일, 들 거, 둘 양, 얻을 득) :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18. 다음 한자 성어 중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道聽塗說
- ② 心心相印
- ③ 拈華微笑
- ④ 以心傳心

- 정답 : ①

- [풀이] 도청도설(道聽塗說)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말을 통하지 않고도 뜻이 전해진다는 의미의 말이다. 반면 도청도설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이므로 그 의미가 나머지와 다르다.

합격의 진리! 해원국어!! 적중 신화! 해원 국어!!

※ 道聽塗說(길 도, 들을 청, 진흙 도, 말씀 설)

- [오답]

- ② 心心相印(마음 심, 마음 심, 서로 상, 도장 인) :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
- ③ 拈華微笑(집다 념, 빛나다 화, 작을 미, 웃을 소) :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 ④ 以心傳心(써 이, 마음 심, 전하다 전, 마음 심) :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19. 다음 중 <보기>의 뜻으로 옳은 것은?

<보기>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 ① 힘든 일을 억지로 함
- ②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음
- ③ 모든 물건은 순리대로 가꾸고 다루어야 함
- ④ 사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통으로 먹으려 함

- 정답 : ②

- [풀이]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란 속담은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이다.

- [오답]

- ① 힘든 일을 억지로 함: ‘울며 겨자 먹기’의 의미에 해당한다.
- ③ 털도 내리쓸어야 빛이 난다.: 모든 물건은 순리대로 가꾸고 다루어야 함
- ④ 털도 안 뜯고 먹겠다 한다.: 사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통으로 먹으려 함

20. 다음 제시된 단어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뵤란듯이: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 ② 가뵤없이: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
- ③ 오뵤이: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 ④ 대수로이: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

- 정답 : ④

- [풀이] ‘대수로이’는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란 의미이다.

※ 평상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즉 그 의미 자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의 의미가 되므로 ‘대수롭다’ 자체는 ‘중요하게 여길 만하다.’의 뜻이 되고, ‘대수로이’는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의 의미가 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 [오답] 대수롭지 아니하게: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하찮이)